

석유화학, 7월 수출 40억달러 초과

지경부, 7월 총수출 514억달러로 급증 ... 석유제품도 48억달러 넘어서

2011년 7월 수출액이 500억달러, 흑자 70억달러를 돌파해 수출과 무역흑자 모두 월간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7월부터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EU(유럽연합) 수출은 소폭 줄고 수입이 크게 늘면서 EU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8월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7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3% 증가한 514억4600만달러로 월간 최대치였던 4월 486억달러를 넘어서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신흥 개발도상국의 꾸준한 성장에 따라 개발도상국 수출비중이 높은 석유화학(41.3%), 석유제품(89.2%)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자동차(23.9%), 자동차부품(38.5%) 등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면, 반도체와 액정디바이스 수출은 수요 부진으로 각각 14.9%, 20.3% 감소했다.

핵심산업의 수출동향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2010	2011			
		5월	6월	7월	1-7월
석유화학 (증가율)	35,715 (30.0)	3,904 (31.7)	4,231 (45.9)	4,093 (41.3)	26,917 (31.2)
반도체 (증가율)	50,707 (63.4)	4,171 (△4.9)	4,208 (△3.9)	3,929 (△14.9)	28,681 (1.5)
자동차 (증가율)	35,411 (39.4)	3,789 (25.5)	4,420 (33.9)	3,934 (23.9)	25,569 (27.6)
석유제품 (증가율)	31,531 (37.3)	4,540 (80.9)	4,309 (58.8)	4,830 (89.2)	29,298 (74.4)
액정디바이스 (증가율)	29,905 (27.6)	2,399 (△6.7)	2,325 (△8.9)	2,247 (△20.3)	15,913 (△7.0)
섬유류 (증가율)	13,899 (19.5)	1,379 (19.4)	1,437 (18.5)	1,411 (7.7)	9,388 (19.0)
자동차부품 (증가율)	18,963 (61.9)	1,828 (22.1)	1,908 (23.4)	2,268 (38.5)	13,317 (28.0)

유럽 수출은 6월 FTA가 발효된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영향으로 EU 수출이 8.7% 감소했다.

한진현 무역투자실장은 “수출이 월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자동차(106.7%), 석유제품(32.9%)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제 EU 수출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저널 2011/08/02>